

# 35세 이상 미혼 남성 결혼 대책 절실

## 고성지역 현재 대략 500명 추산 ... 고성군, 국제결혼자 1인당 500만원 지원

**사례 1 :** 고성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수근씨(가명, 41세)는 영농후계자로 부농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새해 들어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결혼에 대해 또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마흔 살을 넘긴 지난해부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외로움이 엄습해오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고 푸념할 때가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 환절할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는 그

는 부모님의 결혼 재촉과 주위 사람들의 국제결혼 권유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지만, 국제결혼은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사례 2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민호씨(가명, 42세)는 열심히 돈을 모아 집과 차를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쉬는 날이 찾아오면 혼자 허전하고 쓸쓸해 오히려 휴일이 싫어진다고 한다. 강씨는 여자를 몇 번 소개받았지만 선뜻 어촌으로 시집오겠다는 여자들은 없었다고 한다.

**사례 3 :**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광수씨(가명, 37세)는 집을 장만하고 안정된 수입과 폭넓은 대인관계로 어디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남성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역에서 여성들의 수가 적은데다 결혼기피 현상이 심해 결혼 상대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박씨는 그래도 아직 사회적으로 미혼현상이 늘어나고 미혼이 되려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인연이 곧 나타나겠지' 하고 조금

여유가 있지만, 주변에 마흔살 넘은 많은 수의 남성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 올해 들어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이다.

이처럼 고성군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미혼 남성들은 결혼할 짝을 만나지 못해 인구감소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는 비단 고성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웃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현재 35세 이상 미혼남성은 19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며, 2년이 지난 2012년 현재 35세 이상 미혼 남성은 더 늘어나 실제로는 대략 500여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원광연 기자

3면으로 이어짐▶

## 알프스 스키장의 활성화!



안중복은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거스 히딩크와 2009년에 10년간 히딩크 축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향을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성의 알프스 스키장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이제 영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통일시대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설악의 미래는 희망이 됩니다.

**설악의 미래를 안중복과 함께 열어 갑시다!**

- 1956년 강원도 속초 출생
- 속초초(12회) 속초중(18회)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축구협회 기획실장 (1988-1992)
- (주)대우 상무이사 (1998-2000)
-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2003-2011)
- 한나라당 대표 문화관광체육특보 (전)
- 아주대 겸임교수
- 속초중학교 총동창회장
- (사)남북체육교류협회 회장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중복 후원회  
속초시 조양동 1034-4 제일프라자 403호  
Tel : (033) 632-1919

후원회계좌  
농협 301-0100-3157-11  
우리은행 1002-445-815294  
우체국 200923-01-006905  
예금주: 안중복후원회  
후원회장: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후원안내

- 실명으로 개인이 1년에 500만원까지 가능 (법인·단체는 제외)
- 익명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
- 연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공제되며, 10만원 이상도 추가 소득공제 가능
- 후원 후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 송훈석·이동기 압축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결정



송훈석

이동기

민주통합당 속초-고성-양양선 거구의 경선 후보자로 송훈석 국회의원과 이동기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민원담당 행정관이 선정됐다. 신창현 예비후보는 제외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4일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단수 및 복수 경선후보자를 발표하고, 3월초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단수 후보자는 총 54명이다. 도에서는 흥천-횡성 조일현, 강릉 송영철, 동해-삼척 이화영 등 3명이 단수 후보자로 추천돼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복수 후보자는 20개 선거구에 46명을 선정했다. 도에서는 속초-고성-양양 송훈석·이동기, 철원-화천-양구-인제 구인호·문석완·정태수 등 2곳에서 복수 후보자가 선정됐다.

최광호 기자